만리장성 뚫은 CJ대한통운… 물류기업 톱50 진입

해외 계열사 'CJ로킨' 49위 차지
콜드체인 물류분야 경쟁력 강점
年매출액 2년간 21% 이상 껑충
민영 부문선 23위, 인지도 넓혀

CJ대한통운의 해외 계열사 'CJ로킨'이 중국 정부가 선정한 물류기업 톱50에 진입했다. 중국에서 공신력 있는 랭킹 순위에 이름을 잇따라 올리며 현지에서 입지를 탄탄하게 다지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중국 글로벌패밀리사 CJ로킨이 '중국 국가발전 및 개혁 위원회'와 '중국 물류 및 구매 연합회'에서 발표한 '2019 중국 물류기업 TOP 50'에서 49위를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중국 국가발전 및 개혁 위원회는 현지 최고 국가행정기관 국무원 산하의 정부기구로 경제, 사회발전 전략, 중장기발전 계획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중국 물류 및 구매 연합회 또한 물류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산업표준 제정 통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랭킹 순위는 중국내 주요 물류기업들을 대상으로 매출액, 운송·창고 관리역량, IT(정보기술) 시스템 도입 등 주요 지표를 공동 조사 후 종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CJ로킨의 연간 매출액은 2018년 5556억원에서 지난해 6740억원으로 21%이상 증가했으며, 최첨단 해외 물류기술 연구소 'TES이노베이션센터 차이나를' 기반으로 중국 물류시장공략을 위한 선봉장 역할을 맡고 있다. 중국 내 민영 물류기업만을 대상으로 조사해 함께 발표한 '2019 중국 민영 물류기업 TOP 50'에서는 23위를 기록했으며, 중국내 민영 물류기업으로서의 인지도를 넓히고 있다.

CJ로킨은 지난 2015 인수합병(M&A)을 통해 CJ대한통운의 글로벌패밀리사가 됐다. CJ로킨은 중국 전역에 48개 거점과 100만㎡ 규모의 물류센터, 1500여개 도시를 잇는 광범위한 운송망을 갖추고 있다.

냉동·냉장 화물을 운반하는 콜드체인 물류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중국 100대 콜드체인 물류기업'에 6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계 물류 및 공급망에 차질이 없도록 CJ대한통운과 CJ대한통운의 글로벌패밀사가 고군분투하고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패밀리사와의 협업 및 시너지 창출을 통해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주기자 stella2515@dt.co.kr

초고속 반도체 패키지 분석

아드반테스트 'TS9001 TDR 시스템'

아드반테스트는 테라 헤르츠 기술을 활용해 플립 칩 BGA(볼 그리드 어레이) 웨이퍼 레벨 패키지, 2.5D·3D IC(집적회로) 등 다양한 최첨단 반도체 패키지의 배선 고장을 비파괴로 정밀하게 분석하는 'TS9001 TDR 시스템(사진)'의 판매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업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측정 시간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보유한 고주파 프로빙 시스템과도 연결할 수 있어 효율적인 가격에 고장 분석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회사 측은 최근 반도체 패키지의 소형화·고집적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고장 여부를 비파괴로 분석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번 제품을 개발했다고 소개했다. 이 제품은 짧은 펄스 신호 처리 기술을 이용한 TDR(시간영역반사측정법)과 5㎛의 높은 검출 분해능 등으로 고정밀한 고장 개소의 특정을 30초의 측정 시간, 누적 1024회 등 업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측정해 준다.

박정일기자 comja77@

회사채 흥행 실패한 현산 아시아나 인수전 '안갯속'

정부 인수 독려, 자금지원 가능성

HDC현대산업개발이 회사채 발행에서 흥행에 실패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빨간불이 켜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6일 진행된 3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위한 기관투자가 수요예측에서 110억원의 수요만 몰렸다.

이번 조달 자금 중 1400억원은 차환 용도로 쓰이고 나머지 16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흥행에 실패하면서 인수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것을 물론 만기도래하는 회사채마저 자체 현금을 사용해야 해 재무 여력 위축이 불가피하게 됐다.

현대산업개발은 올 3월말 현금성자산이 6612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83.1% 증가했고 1분기 당기순이익은 104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2.5% 늘었다. 코로나19에도 체력을 유지했지만 이번 자금조달 실패로 여유는 다소 사라졌다.

현대산업개발은 코로나19로 항공업황이 크게 나빠지자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지도 예전같이 않은 모습이다. 최근 해외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됐지만 현대산업개발 측은 선결조건이 남아있다며 정중동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좋지 못한 항공업황과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했을 때 '승자의 저주'에 대한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올 1분기 683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고 부채비율은 작년말 1387%에서 올 3월말엔 6280%로 급격히 악화됐다.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금액은 2조원을 넘는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독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금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수가 무산될 경우 항공업 재편은 다음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장우진기자 jwj17@

'LG Z:IN 스퀘어'를 방문한 고객들이 9일 주방 공간에 어울리는 인조대리석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LG하우시스 제공

LG하우시스 "인테리어 고민, 한방에 해결하세요"

논현동 플래그십 전시장 새단장
최신 트렌드 소개·언택트 체험도

LG하우시스가 '언택트(비대면)' 체험이 가능한 전시장으로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인테리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LG하우시스는 서울 논현동 가구거리에 위치한 플래그십 전시장 'LG Z:IN 스퀘어(LG지인 스퀘어)'를 새롭게 리뉴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LG지인 스퀘어는 최신 주거공간 트렌드를 살펴보고 디지털 언택트 체험까지 가능한 고객 중심의 인테리어 전시장으로 탈바꿈했다.

지난 2014년에 문을 연 LG지인 스퀘어는 총 3개층 연면적 1690㎡(약 510평) 규모의 대형 전시장으로, 오픈 이후 제품 상담부터 디자인 제안, 시공업체 연결까지 이어지는 토탈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며 월평균 2000명 이상이 찾는 인테리어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LG지인 스퀘어는 1층 라이프스타일 존, 2층 자재 라이브러리, 3층 쇼룸 겸 고객체험 공간 등 총 3가지 컨셉의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1층 라이프스타일 존은 거실, 주방, 아이방, 욕실 등의 전통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최근 주목받고 있는 홈오피스, 홈카페, 반려동물 공간까지 LG하우시스의 인테리어 제품과 LG전자의 가전 제품이 함께 적용된 각각의 트렌디한 공간들이 모델하우스처럼 꾸며졌다.

2층 자재 라이브러리는 디지털 카탈로그, 동영상, 시뮬레이션 기기 등을 활용해 직원 상담 없이도 고객 스스로 창호·바닥재·벽지·인조대리석 등 다양한 제품 정보와 시공사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언택트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3층은 프리미엄 주방과 욕실 제품 쇼룸 공간인 동시에 각종 세미나, 쿠킹 클래스 등이 진행되는 소통 공간으로 꾸며져 향후 다양한 고객체험 활동이 진행되는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민주기자

가장 빠른 3D 프린터 구현

신도리코 '3DWOX 30X' 선봬

신도리코가 대형 산업용 3D 프린터를 출시하며 B2B 시장에 본격적으로 문을 두드렸다.

신도리코는 대형 산업용 3D 프린터 '3DWOX 30X(이하 30X·사진)'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품은 대형 크기 출력이 가능한 고사양의 FFF(적층제조형) 3D 프린터로 가로 740㎜, 세로 490㎜, 높이 150㎜까지 출력이 가능하다.

이 제품은 현존하는 FFF방식 가운데 가장 빠른 출력 속도를 구현한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기존 자사 제품과 비교해 50% 빠른, 최대 300㎜/s의 출력 속도를 구현해 생산현장에서 대형 출력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아울러 2개 노즐로 ASA(아크릴로니트릴-스티렌-아크릴레이트), TPU(열가소성폴리우레탄), PLA(폴리락트산), ABS(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등 다양한 재질의 필라멘트를 활용할 수 있다. 최대 8가지 색상의 필라멘트를 장착할 수 있다.

박정일기자

현대글로비스, 물류 스타트업 '파크 AI' 지원

현대글로비스가 국내 물류 스타트업 지원에 나서며 근거리 배송 플랫폼 육성에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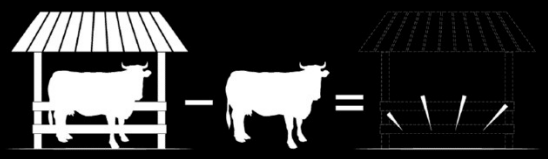
현대글로비스는 신생 스타트업 '파크AI'의 '도심 유휴공간 활용 근거리 배송 플랫폼' 사업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현대글로비스는 앞으로 1년간 파크AI가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기존 사업 노하우를 활용해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현대글로비스는 독보적인 물류 역량 및 사업 경험이 파크AI의 근거리 물류 플랫폼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우진기자

기업의 ITM만 전문 파트너 와이즈허브시스템즈
www.whub.co.kr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말,
이제, 소를 잃으면 고칠 외양간마저 잃게 됩니다

wisehub SYSTEMS

외양간과 소, 둘 다 안전하게 지키는 4단계

"설마 이런 일이?" 하고 생각하신다면 이미 많은 분들이 이렇게에 당하셨습니다. 설마 하는 순간이 도둑이 노리는 때입니다

1단계 내부 정보 유출 차단 — 도둑이 외양간의 소를 훔쳐갈 수 없도록 모든 길목을 통제합니다. GRADIUS DLP
2단계 중요자료 보안 강화 — 그 다음, 외양간 중요자료를 암호화 하여 훔칠 계획조차 하지 못하게 합니다. TrueDRM
3단계 보안성 강한 인증시스템 도입 — 그리고, 아무니 외양간에 들어올 수 없게 외양간 출입을 철저히 통제합니다. TruePASS
4단계 악성변화 시도 차단 — 끝으로 소를 돼지로 바꿔 훔칠 수도 있으니 이 시도도 역시 차단합니다. Filing BOX

※ 소가 있어야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어야 전국민이 잘먹고 잘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외양간은 새로 짓는 것도 좋지만 지어진 것을 지키고 관리하는 것도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가지 모두 준비되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와이즈허브시스템즈의 보안 솔루션 —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www.whub.co.kr

GRADIUS DLP 내부정보 유출방지	TrueDRM 문서·도면보안	TruePass 양방향 인증 솔루션	FILINGBOX 기업용 보안파일서버
국산 최고 내부정보 유출방지·감시 — 하나의 솔루션으로 모든 유출경로에 대한 차단·추적·기록·감시·화면녹화 기능 제공 특히 - 유출 당시의 PC화면 동영상 녹화 - 파일 위변조 과정 확인	문서·도면 DRM의 세대교체 — 문서·도면 암호화를 통한 중요자료 보안 강화와 기존 DRM의 어플리케이션 종속 문제 해결과 빠른 버전업과 키널레벨 암/복호화에 의한 가장 완벽한 DRM	인증의 새로운 방향 — 간편한 양방향 상호인증 솔루션으로 사용자 인증에 대한 편의성과 보안성을 극대화하여 2factor인증 통합연동을 지원하는 솔루션	랜섬웨어방지 문서중앙화 — 문서들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문서유출 방지 랜섬웨어 방지 지원 문서암호화 랜섬웨어 악성문서 변형 프로그램에 의한 변조 방지 솔루션

wisehub SYSTEMS (주)와이즈허브시스템즈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2길 12 에이스테크노타워 901호
02-1833-5782